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2월

발행일 : 2026년 1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7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베트남 노동총연맹 - 한국기업과의 대화	8
[기업탐방] EVERPIA	이재은 대표이사 10
[법률]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검토 1	전현우 변호사 13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3탄	엄진용 회계사 16
[통관] 시스템을 통한 세관 신고 조건	이여람 관세사 19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LAO CAI 성	21
[이달의 보고서] K-비즈니스, 세계로!	31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바이오-제약 공급망 재편과 시사점.....	
[이달의 전시회] 2026 베트남 하노이 제1차 건축자재 전시회	32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3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투자가 견인하는 베트남 전력기자재 시장

PDP8, 원전 재추진 등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베트남

고효율 전력기자재, 송배전 자동화, ESS 등 전력기자재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회 확대



베트남 전력 산업 동향

베트남 전력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5.76% 성장하여, 설비 용량이 현재 89GW에서 185GW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3년에는 전력 수급 부족 규모가 약 120억 kWh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발전원별 생산 비중을 보면 석탄화력이 54.3%로 여전히 가장 높고, 수력(23.4%)과 재생에너지(13.5%)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석탄 수입을 늘려 2024년 세계 5위의 석탄 수입국이 되었으며, 라오스와 중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도 현재 1600MW에서 향후 최대 1만 2100MW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라오까이-빈옌 500kV 송전선을 조기 연결하는 등 송전망 인프라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력 산업 구조

베트남 전력 산업은 국영 기업인 베트남전력공사(EVN)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발전·송전·배전·전력거래의 수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은 EVN 자회사(GENCO 1, 2, 3) 외에도 석유가스공사(PVN), 석탄광업공사(TKV) 및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민간 발전 비중이 약 62%에 달합니다. 송전은 국가송전공사(EVNNPT)가 초고압 망을 독점 운영하고, 배전은 5개 지역별 배전공사가 담당하며 국가 통제 하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거래는 과거 EVN 산하 EPTC가 독점했으나 2019년 경쟁도매시장 개방 이후 점차 민간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주사인 EVN은 이러한 자회사들을 통해 국가 전력계통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지배적인 위치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력 산업 정책 및 제도

베트남 정부는 2023년 발표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2025년 4월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50년까지 완전히 퇴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DPPA)를 통해 대규모 소비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글로벌 제조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 부족 대응을 위해 2030~2035년 사이 원전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 전력기자재 수입동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의 전력 기자재 수입은 송배전망 확충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기회로용 접속장치(HS 8536)가 2024년 약 48억 4000만 달러로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했으며,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HS 8504)와 절연 케이블(HS 8544)도 각각 40억 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시장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 전 품목에서 40~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회로용 접속장치에서 17.49%, 케이블 분야에서 7.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과 함께 기술 기반의 고신뢰 장비 시장에서 2~3위권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전력기자재 주요 기업

베트남 전력 기자재 시장은 현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한국 기업이 공존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인 GELEX 그룹은 자회사인 CADIVI(전선 1위)와 THIBIDI(변압기)를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EEMC는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ABB, 슈나이더,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위치기어와 자동화 시스템 등 고부가 설비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LS일렉트릭이 1997년 진출하여 중저압 배전반 및 자동화 장치를 현지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전동기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현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베트남 전력 시장은 PDP8 개정과 송배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으나, EVN 중심의 보수적인 조달 구조와 가격 민감도는 여전히 제약 요인입니다. 우리 기업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계통 안정화, 배전 자동화, ESS 등 기술적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및 현지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EPC 업체 및 EVN 계열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DPPA 제도 도입과 원전 재추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 수요처를 조기에 발굴하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네트워크 확장 노력이 요구됩니다.

▶ 베트남 하이퐁항,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돌파...북부 항만 최초

하이퐁항만공사가 HICT 3.4부두에서 200만 TEU 달성을 기념하며 150년 항만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 락후옌항 3.4부두 완공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해지면서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하이퐁항은 신규 부두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 자동화 및 친환경 솔루션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성과를 글로벌 공급망 내 하이퐁의 위상 강화로 평가하며 향후 인프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vneconomy 12.29]

▶ 베트남, 2025년 교역액 9,200억 달러 돌파...세계 15대 무역강국 진입

베트남이 2025년 강력한 수출 성장세와 FTA 확대를 발판 삼아 세계 15대 교역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요충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베트남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통해 무역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vov.vn 12.29]

▶ 베트남, 수출입 총액 9000억달러 돌파...사상 첫 대기록

베트남의 올해 수출입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15대 무역 강국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상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누적 수출입액은 9,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16% 증가해 약 10년째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판 티 탕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특정 교역국 집중 현상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꼽았다.

[baodautu 12.29]

▶ 베트남, 세입 규모 사상 첫 2,000조동 돌파...연간 예상치 30.1% 초과 전망

베트남의 연간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동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치를 30.1%나 웃도는 유례없는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운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한 이번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성·시 등 지방 재정에서도 안정적인 징수 흐름을 나타내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대다수 지방 자치 단체가 세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는 일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세수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vnexpress.net 12.29]

▶ 베트남, '하이브리드車' 선호도 크게 높아져...11월 기준 1.3만대 전년比 55%↑

베트남 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만 2,872대를 기록했으며, 일부 고급 브랜드의 통계 제외 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전체 시장의 약 2.4% 수준이지만, 도요타가 57%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혼다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는 등 성장세가 매섭다. 업계는 차종의 다양화와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이러한 가파른 성장을 이끄는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vnexpress.net 12.29]

▶ 베트남, 對유럽 청과류 수출 '역대 최고치'...9월 기준 2.7억달러 전년比 51.7%↑

베트남의 대EU 청과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51.7% 증가한 약 2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패션프루트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급성장한 것과 더불어 가공 과일 및 열대 과일의 비중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네덜란드가 유럽 내 최대 수입국으로서 물류와 유통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 발효 이후 꾸준히 진행된 품질 개선 노력이 유럽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vnexpress.net 12.29]

▶ 베트남기업 타코(Thaco), 10조동 규모 증자 단행...650억달러 '북남고속철' 수주 총력

베트남 복합대기업 타코(Thaco)가 650억 달러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자본금을 약 10조 동 증액하며 재무 구조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증자는 주식배당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체 자본금이 40.5조 동으로 늘어났으며, 쩌 바 즈 영 회장 일가가 여전히 견고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였던 빈그룹이 수주 포기를 선언한 직후 증자가 완료되면서 타코의 단독 수주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코는 총사업비의 20%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과 함께, 필요시 지분을 낮춰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한국 현대로템과 고속철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초대형 국책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vov.vn 12.29]

▶ 호치민시, '껌저-푸미2대교' 신설 승인...총사업비 36조 동(13.7억 달러)

호치민시 인민의회가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총 36조 3,000억 동 규모의 '껌저대교'와 '푸미2대교' 건설 투자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로 사업비를 대납하는 BT 방식의 민관협력(PPP)으로 추진되며, 호치민 남부권의 고립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나베현과 껌저현을 잇는 껌저대교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될 예정이며, 7군과 동나이성을 연결하는 푸미2대교는 롱탄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시 정부는 이번 대규모 교량 신설이 기존 도로의 정체를 분산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인프라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nexpress.net 12.29]

▶ 베트남, 매출 500억동(190만달러) 이하 기업 우대세율 적용...20% → 17%

베트남 국회가 연 매출 500억 동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기존 20%에서 17%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매출 30억 동 미만의 영세 기업에는 더욱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재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대기업의 자회사나 관계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vnexpress.net 12.29]

▶ 베트남, 2026년 해외 취업 11만2,000명 목표...인력 수출 확대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2026년 해외 근로자 파견 목표를 11만 2,000명으로 설정하며 노동력 수출과 고용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14만 4,300명을 파견하며 연간 계획을 초과 달성했으며, 실업률 하락과 평균 임금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를 끌어냈다. 정부는 취업박람회와 직업 상담을 통해 약 170만 명에게 고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해외 진출과 고용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aochinhphu 12.30]

▶ 베트남,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두자릿수 증가...1인당 830만동 전년比 10%↑

정부는 2025년 베트남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 급증한 831만 동을 기록하며 강력한 경제 성장세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부 씨엔 탕 내무부 차관에 따르면 올해 임금근로자 소득은 전년보다 약 75.6만 동 늘어나 최근 수년 내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경제활동인구는 5,270만 명에 달하며 실업률은 2.22%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견고한 고용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급여 체계 개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증대 정책이 기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무부는 내년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와 조직 정예화를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vnexpress.net 12.30]

▶ 2025년 라오스-베트남 교역액 30억 달러 근접

라오스와 베트남의 2025년 교역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통사완 품비한 라오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조만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치, 국방, 투자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힌남노 국립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공동 개발 성과를 통해 문화·사회적 연대 또한 공고히 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21~2025년 협력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최근의 추진 동력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와 포괄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비엔티안 타임즈 01.16]

▶ 라오스와 베트남, 2026~2030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체결

라오스와 베트남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을 계기로 2030년까지의 당 간 협력 및 하노이-비엔티안 간 지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와 국방, 무역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와 비엔티안-붕양 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젊은 세대에 양국의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또 람 서기장은 오는 2월 라오스 국민 방문 요청을 수락하며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비엔티안 타임즈 01.27]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 유라시아그룹, 2026년 「Top Risks 2026: 글로벌 10대 핵심 리스크」 제시
 - ◆ 지정학적 충돌보다는 미국의 정책 환경 변화의 글로벌 파급효과에 주목
 - ◆ 현지는 정책 환경의 급격한 완화 보다는 관세·통상 조치의 선별적 유지 가능성에 무게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의 특정 반도체 및 장비 대상 관세 부과 발표(1.14) 주요 내용

- ◆ 트럼프 美대통령, 미국에 수입되는 특정 고성능 반도체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포고문에 서명 (美 동부시간 기준 1.14(수))
 - ◆ 232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조치로, 같은 날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포고문 내용 및 팩트시트를 게시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 ◆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유엔은 2.7%, 세계은행은 2.6%로 전망
 - ◆ 유엔과 세계은행은 관세·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로 '26년 세계 경제 단기적 둔화 전망
 - ◆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식품 가격 안정으로 유엔은 3.1%, 세계은행은 2.6%로 완화 전망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 ◆ '26년 美 통상정책 주요 변수로 IEEPA 관세 판결, USMCA 재검토, 중간선거제시
 - ◆ 사법 판결 및 협정 재검토가 병행되며 관세 정책의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지속
 - ◆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구도 변화는 통상·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베트남 노동총연맹 - 한국기업과의 대화... 노동과 기업의 균형 논의



<베트남 노동총연맹 - 한국기업 교류 대화 행사 장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 대화가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베트남 노동총연맹)과 KOCHAM(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은 1월 15일 ‘노사관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대화·정보교류 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Ngô Duy Hiếu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의장은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동시에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법규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관계가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태연 코참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이 약 1만 개에 달하며,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물류·서비스·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경제와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한국 기업은 베트남을 단기 생산기지가 아닌 장기 협력 파트너로 인식한다”며, 현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지역사회 기여를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숙련 인력과 중간관리자까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인력 이동 속도가 빨라지며 기업의 인력 안정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베트남 노동총연맹 - 한국기업 교류 대화 행사 장면>

코참 측은 해법으로 ▲ 산업지역과 농촌 간 연계 모델 등 구조적 접근 ▲ 기숙사·사회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 안정 ▲ 임금뿐 아니라 근무환경·경력 개발·신뢰 기반의 대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 안정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 기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화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 내 노동조합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단체협약, 산업안전 보건, 복지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이야기들이 폭넓게 오갔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한국 기업 내 노조 활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집단행동이 줄어들고 노사관계도 한층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 근로자 50명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담은 지원 물품이 전달되며,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제도 변화와 노동정책의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서, 대화와 협력이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남았다.

<출처: bao lao dong/ 코참 사무국>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피아, ‘품질’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베트남 홈 패션의 미래를 쓰다

에버피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에버피아(Everpia)는 1992년 한국계 패딩 제조기업의 베트남 법인에서 출발해, 1995년 침구·매트리스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1999년 베트남 최초의 한국 침구 브랜드 ‘에버론(EVERON)’을 공식 론칭했습니다. 현재는 침구(Bedding)와 패딩(Padding) 2대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제조와 유통을 함께 수행하며 “품질과 신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3년(2023~2025) 동안 에버피아는 지속가능한 제조 기반과 사업 체질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2023년 7월 동나이성 Giang Dien 산업단지에 신규 공장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2024년 7월 24일 해당 공장이 IFC(세계은행그룹) 기준 ‘EDGE Advanced’ 인증을 공식 취득했습니다. (현재 Net Zero 인증 진행 중) 이는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수자원·자재 효율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은 대표이사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버피아의 주요 사업은 아래 두 축입니다.

(1) 침구(Bedding) 사업

에버론(Everon) 브랜드를 중심으로 침구(이불·베개·침대시트) 및 매트리스(스프링/라텍스/PE 등), 타월·홈 액세서리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500개 이상의 유통 매장망을 기반으로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MTE 하노이 2025에서 프리미엄 라인을 선보이는 에버피아

(2) 패딩(Padding) 사업

의류/아웃도어용 충전재 등 패딩 소재를 제조·공급하며,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품질을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on Flagship Space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베트남은 도시화와 소비 세분화, 디지털 채널 확장 등 구조적 성장 동력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브랜드 신뢰, 제품 품질, 유통 실행력을 갖춘 기업에 기회가 많은 시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소비 패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겨울용(보온성) 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등,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제품 포트폴리오와 생산·재고 운영을 더 민첩하게 가져가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도전은 수요 구조 변화(기후/경기/채널 변화)와 경쟁 심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단순히

“버티기” 보다는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영업 실행력 강화 대리점(에이전트)과 본사가 함께 매출·목표·재고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에이전트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주문 리드타임 단축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쇼룸 현장에서도 데이터 기반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ESG 기반 경쟁력 강화(그린 팩토리·탄소 감축) 공장 운영과 설비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앙디엔(Giang Dien) 공장의 ‘EDGE Advanced’ 인증 취득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에버피아의 핵심 브랜드 '에버론'의 대표 상품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들께는 아래 다섯 가지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제품보다 먼저 '현지 소비자·채널'부터 설계** 지역·소득·세대별로 채널 반응이 다르므로, “누구에게, 어떤 채널로, 어떤 가치를 판매할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통 파트너 운영 체계화** 파트너를 단순 판매처가 아니라 ‘공동 성장 파트너’로 보고, 판매·재고·CS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 구조를 만들면 실행력이 올라가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 **위조·모조품 리스크 선제 관리**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위조 이슈가 따라오기 때문에,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과 플랫폼·당국 협업 등 대응 프로세스를 초기에 갖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SG·품질 인증을 '확장 조건'으로 인식** B2B(호텔/프로젝트/수출)로 확장할수록 지속가능성 및 인증 기준은 사실상 시장 진입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기 성과보다 '현지화된 운영 역량'에 투자**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변동성도 큰 시장이므로, 초기부터 운영·조직·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두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신 투자법 살펴보기

1. 서설

2026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투자법(143/2025/QH15)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자법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첫 번째의 법률이기에 이번 투자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신 투자법 변경 사항

가. 투자방침 승인 대상 프로젝트 범위

관련 이 부분은 대규모 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 성·시 단위의 관할 관청인 계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요하지만, 대규모 또는 특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투자방침 승인이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사전에 요구됩니다. 신 투자법은 항만, 공항, 통신, 출판, 언론,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토지 또는 해양 자원 사용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등 몇 가지 중요하고 민감한 분야 내에서 투자 방침 승인이 필수적인 프로젝트의 범위를 좁히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조건에 근거하여 국회, 국무총리,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방침 승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 투자절차 관련 규정 신설

적용 대상: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집중 디지털 기술 단지, 자유무역지대, 국제금융센터 및 경제특구 내 기능 구역에 있는 프로젝트(정부가 규정한 투자 방침 승인 대상 프로젝트 제외)는 2025년 투자법 제28조에 따라 특별 투자 절차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투자 절차에 따르면:

(i) 투자자는 건설, 환경 보호, 소방 및 진화와 관련된 법적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 영향 검토 및 예측과

악영향 저감 조치 제안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는 예비 환경 영향 평가 및 양도 제한 기술 평가(있는 경우)를 대체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ii) 투자자는 투자 방침 승인, 기술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보고, 상세 계획 수립, 건축 허가 발급 및 건설, 소방 및 진화 분야 내 기타 규제 승인 또는 허가 절차를 면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투자법은 환경오염유발 업종의 경우 투자 승인 전에 환경평가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투자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개선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절차를 살펴봐야겠지만 더 빠르고 간소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외국인 투자자 신규 투자 시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생략 가능

모든 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법 제19조 2항은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시행하기 전에 투자프로젝트 신청보다 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인 설립 전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해당 투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비용 지급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 토지임대료, 건설비 지급, 직원 채용, 설비 구매 등 – 투자등록증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점차 더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투자프로젝트 운영 기간 조정 허용

기존 투자법 하에서는 투자 방침 승인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하고자 할 때 원래 운영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프로젝트 운영 연장 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투자법은 투자자가 프로젝트 이행 단계 중 언제든지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조정(연장 또는 단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전 법령에서 요구한 대로 프로젝트 만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기간 종료 가 짧지는 않으나 길지 않게 남은 프로젝트의 경우



M&A 거래 시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더 안정적인 투자프로젝트 기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해외 투자 방침 승인 절차 폐지

신 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 투자법을 살펴보면 베트남 투자자가 외국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취득해야 하였습니다. 그 승인 대상이 국회/총리 등 사실상 일반적인 투자규모로는 투자 승인 취득이 불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어 베트남의 해외투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법은 중앙부서인 계획투자부(MPI)를 주무부서로 규정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투자등록승인을 취득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인허가 난이도를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참고: 문맥상 재무부보다는 계획투자부(MPI)가 투자 승인 주무부서인 경우가 많으나, 원문에 따라 재무부로 유지하시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3. 마치며

곧 시행될 신 투자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을 낮추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법 자체의 적용을 피할 수 없고 투자법상 투자인허가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 점차적으로 투자법상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거나, 투자법상 인허가 절차를 투자 이후에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산업, 데이터 센터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대해 우대 업종, 그리고 호치민 및 다낭에 설립될 국제 금융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혜택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각됩니다.

전현우 한국변호사

(現) 법무법인JP 베트남 지사장

(前) JB증권 베트남 감사위원

(前)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JP 한국사무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사항: 기업법무, 금융, M&A, 부동산

연락처: (84-4) 3724 5201~3

이메일: bhsjun@jplawvn.com



전현우 변호사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3탄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부터 새롭게 시작한 '베트남 회계 기준(VA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재무제표의 요소

지난 호에서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는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입니다. 손익계산서(베트남에서는 아직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음)에서 성과의 측정치로서 '이익'이라는 기준이 사용되는데, 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이익의 기준으로 각각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의 여러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익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 국가별로 호칭이 조금씩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이익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 역시 조금씩 상이합니다. 단, 여기서 '수익'과 '이익'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여기서 사건이라 함은 일반적인 용어의 뜻으로서 사건 또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해당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① 과거 사건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개념으로 미래

에 대한 약속 또는 보증과 같은 행위 역시 자산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 기업의 통제

자산은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같은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지만, 반드시 법률적 권리가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이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갖는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신기술에 대한 법률상 권리는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독립적으로 확보되고 이를 통제 가능하다면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자산과 같이 기업이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도, 경제적 소유권(즉, 장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을 보유한 경우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서 정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③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킬 것을 확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자산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에 투입되기 위해 취득하여 소유 중인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취득 또는 지출은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결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채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① 과거 사건

부채 역시 자산과 유사하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선급 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국, 부채라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경제적 또는 금전적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서, 그 '빚'이라는 의무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자원의 유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 다른 의무의 대체, 자본의 전환 등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현재 의무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합니다. 의무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확정된 의무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 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 하자에 대해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실무 관행상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 수리로 지출될 예상 금액은 부채로 봅니다.



④ 추정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총당부채라고 하는데, 총당부채가 현재 의무를 수반하며 부채의 나머지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을 '추정'하여야 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을 뜻하며,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은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이나 순자산 공정가치와는 다릅니다. 아울러 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정의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소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납입자본

납입자본금은 정관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주식회사인 경우) 등 투자자인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을 말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업의 형태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특정 업종의 경우 정관자본금의 규모를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010년부터 최소 법정자본금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부 성에서는 투자국이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관행적인 사항이고 해당 성의 해외자본 유치 실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요구 때문이니 이 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기타 자본 요소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누적 잔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 투자한 대부분 한국 투자 기업들의 기업 형태가 '유한회사'이므로 기타 자본 요소로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배당을 제외한 당기순이익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 금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맺음말

상기 각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잘 이해하고 인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호에서도 이번 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세관 신고 조건

2025년 12월 18일, 재무부 장관은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세, 수입세, 수출입 물품의 세무 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121/2025/TT-BTC를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개정은 전자통관 제도의 도입이 아닌, 기존 전자통관 체계를 전제로 하여 시스템 접속, 신원 인증, 전자 신고 인프라 및 통관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시스템을 통한 세관 신고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수출입 기업이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시스템을 통한 세관 신고 조건

시스템을 통해 세관 신고를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스템 접속 등록 요건

- ① 세관 시스템 접속을 위해 접속 계정 및 접속 정보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② 기업 및 개인은 VNeID 계정을 활용하여 세관 시스템 접속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 정보, 담당자 정보, 접속 정보 등에 변경·추가·취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세관 당국에 통보하셔야 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등록 정보의 최신성 유지 여부가 향후 통관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전자 통관 신고 소프트웨어 사용 요건

개정 규정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전자 통관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①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전자 통관 신고 소프트웨어(해당되는 경우), 또는
- ② 세관의 운영 요건에 부합하고 시스템과 호환되며, 세관 당국의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전자 통관 신고 소프트웨어(세관 당국은 검사 완료 후, 해당 검사 결과를 세관 전자 포털을 통해 공개)

따라서,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전자 신고 반려 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 중인 민간 통관 프로그램이 세관의 공식 검사·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자 거래 인프라 구축 책임의 명확화

개정 규정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시스템과의 정보 접근 및 교환 과정에서 신고, 전송, 수신 및 저장이 가능한 전자 거래 기술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 ② 전자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이 기업(또는 신고 주체)에게 명확히 귀속됩니다.

이는 향후 세관의 전자 자료 제출 요구, 사후 검증, 시스템 로그 확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외주 또는 대행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수출입 기업에 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실무 대응 포인트

수출입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① 세관 시스템 접속 계정 및 등록 정보 최신화 여부
- ② VNeID 계정 활용 가능 여부 및 연계 상태
- ③ 사용 중인 전자 통관 신고 소프트웨어의 세관 인증 여부
- ④ 전자 신고·자료 보관이 가능한 내부 IT 인프라 구축 여부
- ⑤ 통관 대행 시, 책임 범위 및 시스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계약 내용 점검

4. 결론

이번 제도 개정은 수출입 기업의 통관 절차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전자통관 환경을 전제로 한 관리·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요건 미충족 시 통관 지연 또는 신고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께서는 사전 점검 및 준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여람 관세사 (국가공인 관세사)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화: 024-3946-0511 (620)
 메일: yeoram@kotra.or.kr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역 소개 - 라오까이성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3,256.92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1,778,785 명 • 도시 거주 비율 : 21.17%
지정학적 위치	<p>라오까이성은 베트남 서북부의 관문으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의 하노이, 하이퐁(Hai Phong), 꽝닌(Quang Ninh) 및 중국의 쿤밍과 경제회랑을 구축하면서 북부 구릉지대와 산악지대의 중심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쪽: 뚜옌꽝(Tuyen Quang)성과 푸토(Phu Tho)성 • 서쪽: 라이쩌우(Lai Chau)성 • 남쪽: 선라(Son La)성 • 북쪽: 중국의 윈난성과 약 182km의 국경선 보유 <p>라오까이성의 행정 중심지인 옌바이(Yen Bai) 코뮌은 하노이 수도에서 158km 떨어져 있음. (2025년부터 지방행정단위가 2단계로 축소되면서, '성(광역시)' 아래 '시/군' 단위가 사라지고 '코뮌(읍/면/동 수준)'으로 변경)</p>
교통 시스템	<p>쿤밍 - 라오까이 - 하노이 - 하이퐁 - 꽝닌을 잇는 경제회랑 축에 위치한 라오까이성은 베트남 서북부 지역을 베트남의 다른 지역 및 세계와 연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라오까이성의 주요 교통 인프라는 도로, 철도, 수로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공항이 2027년 완공으로 추진 중임.</p>
GRDP 성장률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DP 예상 성장률 : 9.43% (2010년 가격을 기준년가격으로 함) • 1인당 GRDP : 8,500만 동/년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출액: 20.8억 달러; 총수입액: 12.5억 달러(추정치) • 2025년 말까지 산업생산지수는 109.6%, 산업생산액(2010년 불변가격 기준)은 75조 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상품 소매총액 및 소비자·서비스 매출액은 85조 동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구조 ('25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건설업 : 37.58% • 서비스업 : 39.54% • 농림어업 : 15.3%
인적자원 (행정구역 통합 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연령 인구 비율: 49% • 노동 연령 인구 중 직업 훈련 이수 비율: 70% •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36% • 신규 취업자 수: 30,000명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구역: 441만 동/월, 즉 21,200동/시 • 제3구역: 386만 동/월, 즉 18,600동/시 • 제4구역: 345만 동/월, 즉 16,600동/시

구분	내용
외국인 투자 (‘25.9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외국인투자: 67건 FDI 프로젝트에 10억 8,668만 달러 한국 투자: 4건 프로젝트에 3,350만 달러

투자환경



라오까이성의 위치 및 상세 지도

1. 교통시스템

도로

하노이 수도와 라오까이성 및 서북부 각 성들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인 하노이-라오까이 고속도로가 2026년까지 편도 4차로 규모로 확장·완공될 예정임. 이와 함께 37번 국도, 70번 국도, 32번 국도, 32C번 국도, 2D번 국도, 4E번 국도, 279번 국도, 4D번 국도, 279B번 국도 등 9개 국도도 연결되어 있음.

철도

하노이-라오까이 노선은 중국과 연결되어 국제복합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궤간 1,435mm(표준궤)의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이 건설 중이며, 본선의 경우 설계 속도는 160km/h임. 해당 노선은 늦어도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철도 산업과 지원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수로

홍(Hong)강, 짜이(Chay)강 및 탁바(Thac Ba) 호수의 도내 수로 노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 생활 지원, 화물 운송은 물론 관광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항공

현재 사파 공항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4C급 공항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1단계에서는 연간 150만 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처리 능력을 연간 300만 명까지 확대하여 항공 여객 운송 및 환승 수요를 충족할 예정임.

2. 관광 및 천연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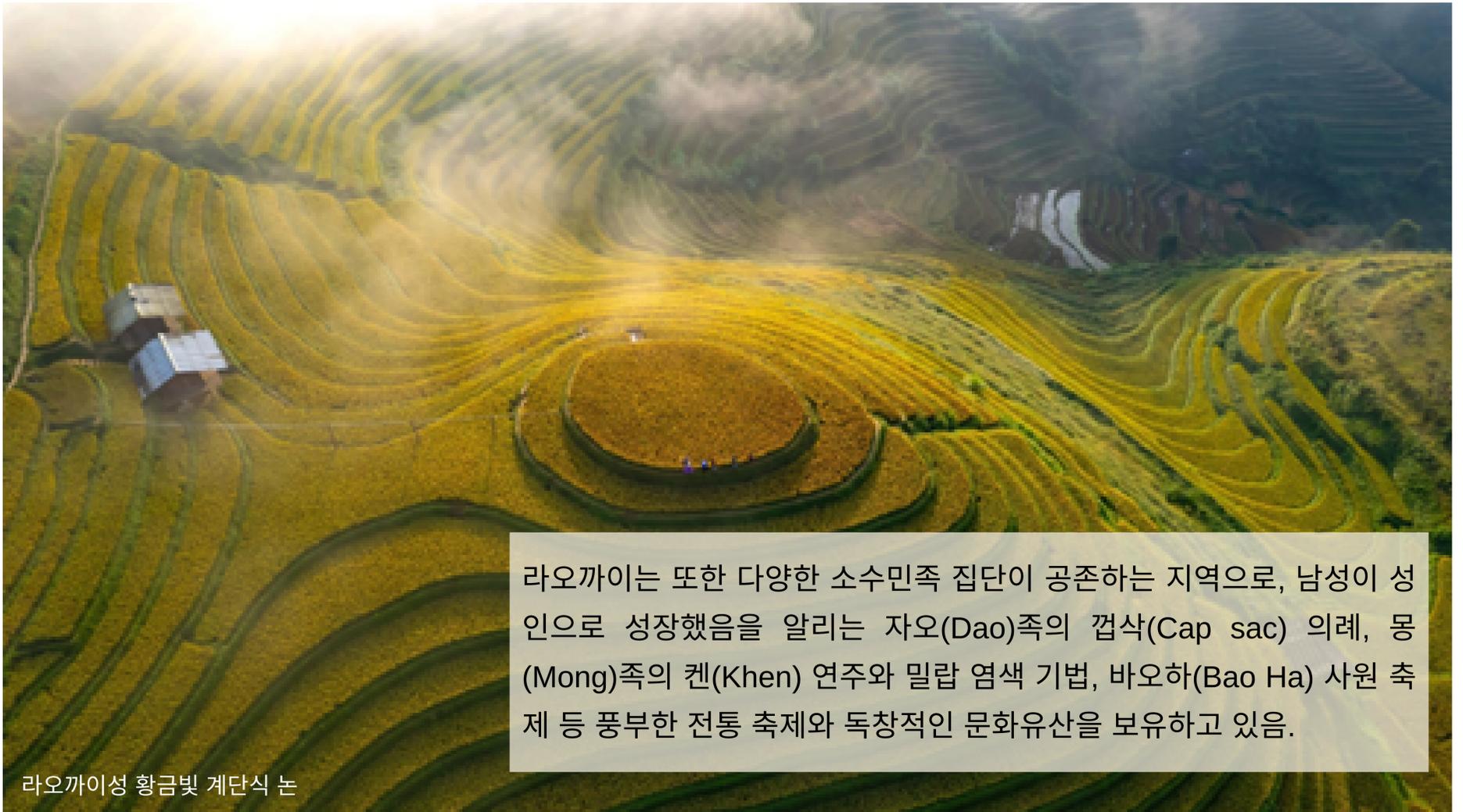
판시팡 정상

라오까이성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상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음. 베트남 '국가중점관광중심지' 중 하나로서, 유명한 자연경관과 소수민족의 고유한 색채가 깃든 문화, 그리고 체계적으로 투자·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관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광 명소를 보유함:

-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해발 3,143m의 판시판(Fansipan) 정상
- 1,3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여 '산 위의 하룻배'로 알려진 탁바(Thac Ba) 호수
- 신비로운 원시 고목림이 펼쳐져 있는 해발 2,865m의 따쑤어(Ta Xua) 정상
- 해발 2,860m의 라오탄(Lao Than) 정상
- 주민들의 근면한 노동과 서북부 산림의 웅장한 자연미가 조화를 이룬 무깡짜이(Mu Cang Chai) 계단식 논
- 박하(Bac Ha) 현에 위치한 호앙 아 뜨엉(Hoang A Tuong) 궁전, 응우옌 타이 학(Nguyen Thai Hoc) 묘역, 트엉(Thuong) 사원, 머우(Mau) 사원, 바오하(Bao Ha) 사원, 동꾸옹(Dong Cuong) 사원 등 문화·정신·역사적 명소들도 다수 보유함.
- '구름 사냥(Cloud Hunting)'의 천국인 이띠(Y Ty) 읍
- 평균 기온 약 18°C의 맑고 시원한 기후로 '안개 속의 도시'로 알려진 사파(Sa Pa)



무영화(Muong Hoa) 모노레일



라오카이는 또한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남성이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자오(Dao)족의 껍삭(Cap sac) 의례, 몽(Mong)족의 켄(Khen) 연주와 밀랍 염색 기법, 바오하(Bao Ha) 사원 축제 등 풍부한 전통 축제와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라오카이성 황금빛 계단식 논

특히, 타이(Tay)족과 자이(Giay)족의 줄다리기 의례, 타이족의 텐(Then) 의례 및 타이(Thai)족의 쏘에(Xoe) 춤 예술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음. 더불어 라오카이 국제 국경관문은 중국 윈난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상업 관광, MICE, 국제 카라반 관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라오카이성 황금빛 계단식 논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은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는 경제구로서, 화물의 집적·조정 역량을 갖추고 저비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개발되는 지역임. 따라서 상업 인프라, 물류단지, 내륙항만, 시장,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그리고 국경검문소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은 라오까이성의 핵심 연결 축인 하노이-라오까이 고속도로 및 하이퐁-하노이-라오까이 철도 노선과의 연속적인 연결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홍강의 국경 수로와 사파 공항을 발전의 핵심 추진력으로 활용함.

산업·도시·상업 및 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인 기술적·사회경제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조성함.

이를 위해서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은 자연 생태계의 가치 보전·증진, 환경 자원 보호, 국방·안보 강화 및 국가 주권 수호를 바탕으로 국경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계획에 따르면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의 총규모는 15,929.8ha이며, 인구 규모는 2030년까지 86,000명, 2045년까지 12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라오까이성은 대규모 시장인 중국과의 국경관문 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국경관문 지역을 상업·서비스·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업·관광 서비스 축을 형성하며, 베트남과 중국 및 ASEAN 지역을 잇는 주요 교역 거점 중 하나로 발전시킬 것임.

우대정책

투자 유망 지역

- 라오까이성 관할 99개 읍·동 중 95개 지역 포함. 단, 상대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옌바이(Yen Bai), 어우러우(Au Lau), 남끄엉(Nam Cuong), 반푸(Van Phu) 등은 우대정책 대상에서 제외.
-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 라오까이 남쪽 산업단지, 민꾸언(Minh Quan) 산업단지, 어우러우 산업단지, 쩌옌(Tran Yen) 산업단지, 탕롱(Tang Loong) 산업단지.

특별 투자우대 업종 및 투자우대 업종

정부의 시행령 제31/2021/NĐ-CP호 및 제239/2025/NĐ-CP호에 근거하여 특별 투자우대 업종 39개와 일반 투자우대 업종 7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첨단기술, 정보기술, 지원산업, 농업,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문화·사회·체육·보건, 과학기술, 전자, 기계, 소재 제조 등의 분야가 포함됨.

수입세 면제

투자우대 대상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우대 정책

투자지역	법인세
경제 구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 법인세 우대세율 10% 적용 • 최초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감면 •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및 기타 우대 혜택 적용 • 일부 경우, 총리의 결정에 따라 우대세율 적용 기간 최대 15년 연장 가능
산업단지(경제 구역 제외)	투자우대 지역으로 지정,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정책 적용 (10년간 법인세 17% 적용, 최초 2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면)
기타 투자 프로젝트	베트남의 2025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및 업종별로 10%, 15%, 17%의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여성 근로자 및 소수민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우, 또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우선 이전 대상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 면제·감면의 추가 혜택도 제공함.

토지 임대료 면제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하되, 토지 임대 결정일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투자우대 분야 또는 투자우대 지역에서 생산·영업 목적의 토지 사용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토지법에 따른 상업용 주택 건설용 토지 및 상업·서비스용 토지 사용의 경우는 제외됨.

경제구역 내에서 투자우대 분야 또는 투자우대 지역에 해당하는 생산·영업 목적의 토지 사용 프로젝트는 기본 건설 기간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 종료 후에도, 정부 시행령 제103/2024/NĐ-CP호 제39조 제4항에 따라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상업용 주택 건설용 토지 및 상업·서비스용 토지 사용 프로젝트 제외).

경제구역에서 특별 투자우대 업종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토지 임대 기간에 대해 토지 임대료가 면제됨.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2025년 9월까지 외국인투자는 67건으로, 총투자액은 US 10억 8668만 달러임.

라오까이성 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기업명	내용	투자국가	총투자액 (USD)
1	룩옌(Luc Yen)읍 꼭하 II(Coc Ha II) 지역 및 구 리에우도(Lieu Do)읍 지역 백색 석재 확대 조정 투자 사업	R.K Marble Vietnam Co., Ltd.	[원석 채석량]: 연간 485,000m ³ [세부 내역] • 블록석·장식용 석재: 연간 160,196m ³ • 탄산칼슘 분말용 석재: 연간 219,317m ³ (연간 581,190톤) • 일반 건설자재용 부산물 활용 석재: 연간 72,750m ³	인도	8,500,000
2	흰색 대리석 가공공장 투자 사업	R.K Marble International Co., Ltd.	[총 설계 생산능력]: 연간 2,000,000m ² [세부 제품·서비스] • 규격 절단 석재: 연간 560,000m ² • 대형 석판: 연간 1,440,000m ²	인도	12,000,000
3	바오아이(Bao Ai)읍 몽선(Mong Son) 석회석 광산 채굴 확대 사업 및 반푸(Van Phu) 동 가공공장 확장 투자 사업	YBB Calcium Products Company Limited	[석회석 광산 채굴 능력 확대] 연간 원석 135,000m ³ → 280,000m ³ 로 증대 [가공공장 처리량] 연간 360,000톤	싱가포르	7,613,000
4	목재 제품 및 SPC 바닥재 생산공장 투자 사업	Viet Nam Thien An Wood Co., Ltd.	[사업 규모] • 합판: 연간 100,000m ³ • 가정용 목재 판재: 연간 100,000m ³ • SPC 바닥재: 연간 1,000,000m ² • 주방가구(주방 캐비닛): 연간 336,000세트	중국	8,696,000
5	세오쥙호(Seo Chong Ho)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Vietnam-China Power Investment Company Limited	-	중국	41,948,488
6	5성급 호텔 및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사업	Lao Cai International Hotel Joint Venture Company Limited	-	싱가포르	78,472,000

2. 한국 투자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4개 프로젝트에 총투자액 US 3350만 달러 투자.

라오까이성 내 한국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기업명	내용	위치	총 투자액 (USD)
1	CJ CGV 베트남 유한회사 - 옌바이 지점 사업	CJ CGV Viet Nam Co., Ltd/ Yen Bai Branch	[설계 규모] • 상영관 3개관 (총 366석) • 로비 및 대기 공간 • 영화 티켓 판매 카운터 • 식음료 판매대 • 상영 일정·영화 정보 안내용 전자 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	옌바이(Yen Bai) 탄공(Thanh Cong) 거리 및 또히엔탄(To Hien Thanh) 거리 교차로, 옌호아(Yen Hoa) 공원, 상업·서비스·엔터테인먼트 복합센터 및 Shophouse 상업용 주택 단지 4층	830,500
2	수출용 의류 제조공장 건설 투자 사업	VINA KNF International Co., Ltd.	[생산능력] 연간 1,600만 개	쩨옌(Tran Yen) 읍쩨옌 1~2리	9,000,000
3	Unico Global YB 수출용 의류 제조 공장 투자 사업	Unico Global YB Co., Ltd.	[생산 제품 구성] • 코트(외투): 연간 1,350,000벌 • 스키 재킷: 연간 1,125,000벌 • 바지: 연간 1,320,000벌	어우러우(Au Lau) 동 어우러우 산업단지	18,700,000
4	연간 1,500만 벌의 수출용 의류 제조 공장 건설 투자 사업	D-CODE INC Co., Ltd.	[생산능력] 연간 1,500만 벌	옌빈(Yen Binh) 읍틴흥(Thinh Hung) 산업집적지	5,000,000

산업단지 현황

1. 주요 산업단지 정보

라오까이성 내 주요 산업단지 정보

순번	사업단지명명	설립 연도	면적 (ha)	주요정보
1	라오까이성 남쪽 산업 단지	2006	400	[위치] 반푸(Van Phu) 동 [입주율] 91.55% [투자 유망 분야] 조림목 가공, 광물 및 건설자재 가공 등
2	어우러우(Au Lau) 산업단지	2008	120	[위치] 어우러우(Au Lau) 동 [입주율] 84.15% [투자 유망 분야] 의류산업, 전자제품 조립, 수공예품, 기계·금속 가공, 농·임산물 가공 등
3	민꾸언(Minh Quan) 산업단지	2008	107	[위치] 어우러우(Au Lau) 동 [입주율] 94.66% [투자 유망 분야] 광물 가공, 농·임산물 가공, 화학 공업, 소비재 산업 등
4	쩨엔(Tran Yen) 산업단지	2025	254.59	[위치] 어우러우(Au Lau) 동 [현황] 건설 투자 중 [투자 유망 분야] 첨단기술 제조 산업, 건설자재 및 건설 제품 제조업, 경공업 시설 등
5	탕롱(Tang Loong) 산업단지	2011	1,100	[위치] 탕롱(Tang Loong) 읍 [입주율] 89.58% [투자 유망 분야] 비료, 화학, 야금, 기계 산업, 선광(광물 정제) 등
6	동포머이(Dong Pho Moi) 산업단지	2009	100	[위치] 라오까이(Lao Cai) 동 [입주율] 89.7% [투자 유망 분야] 다업종 복합 단지 (친환경·청정 산업 중심)
7	박주옌하이(Bac Duyen Hai) 산업단지	-	85	[위치] 라오까이(Lao Cai) 동 [입주율] 87.6% [투자 유망 분야] 다업종 복합 단지 (친환경·청정 산업 중심)

2. 투자 유망 분야

- 교통·물류 및 지역 간 연계 인프라
- 대규모·고품질 농업 및 첨단 농업
- 가공산업, 청정산업 및 심층 가공 산업
- 관광 및 서비스 산업
-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라오까이성 재정국 산하 투자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지원 센터	Mr. Lâm Tuấn Khanh: 부센터장	주소: 라오까이성 옌바이 동 찐푸 거리 6번지 Tel: 02163 859 347 Website: https://stc.laocai.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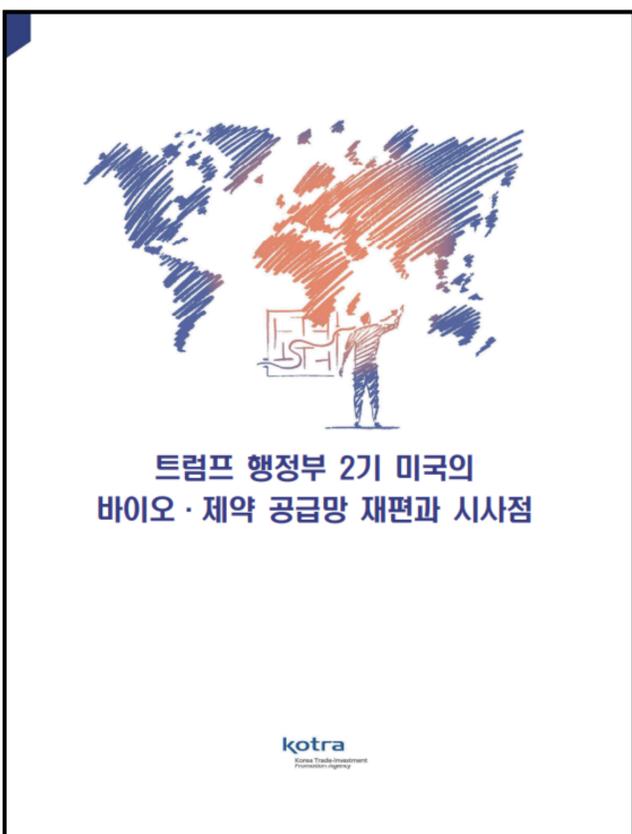
K-비즈니스, 세계로! : KOTRA 지사화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은 기업들 : 2025 해외지사화사업 우수사례집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난관을 넘어 성과를 이루다
2. 신뢰를 쌓아 성장을 지속하다
3. 미래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바이오·제약 공급망 재편과 시사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배경
2. 바이오·제약 산업 개요 및 시장 동향
3. 바이오·제약 산업 정책 및 규제 동향
4. 현지 기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6 베트남 하노이 제1차 건축자재 전시회

전시회명	2026 베트남 하노이 제1차 건축자재 전시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전시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전 반드시 주최자 또는 전시장으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 현재 https://vietbuildexhibition.com.vn/en/exhibitions/ 사이트에는 2025년 전시회 정보만 게시되어 있으며, 2026년 전시회 정보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전시회 관련 내용은 주최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 일정은 썸네일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기간	2026.03.26 - 2026.03.30
개최장소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주최기관	VIETBUILD CONSTRUCTION INTERNATIONAL EXHIBITION ORGANIZATION CORPORATION
개최장소	Vietnam Exposition Center (VEC)
개최규모	7000sqm(m ²)
웹사이트	http://hardwaretools.com.vn/en
산업분야	기타, 건축&기자재
전시품목	건설, 건축자재, 실내외 인테리어 장식, 부동산 등
주최자	Dinh Ngoc Truc (Maria) (+84) 0978-607-987 / sale.vietbuild@gmail.com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01. 01~2025. 12. 31 기준 누계		2025. 01. 01 ~ 12. 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379	94,608.58	451	895.92	5,292.21
싱가포르	4,400	89,875.99	542	4,836.20	9,395.16
일 본	5,717	79,320.22	296	1,620.97	3,731.82
대 만	3,413	42,335.89	173	965.77	1,723.23
홍 콩	3,226	41,404.24	470	1,725.13	3,129.62
중 국	6,318	34,990.05	1,275	3,635.89	5,695.80
버진아일랜드(영)	943	24,456.98	31	317.37	911.95
네덜란드	466	14,938.10	21	70.60	207.41
태국	793	15,391.96	43	276.35	1,153.58
말레이시아	786	14,815.81	40	239.07	2,062.95
미국	1,515	12,302.11	127	467.07	664.12
기 타	7,460	65,185.31	534	2,247.57	4,323.11
전체 합계	45,416	529,625.24	4,054	17,321.28	38,212.7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연번	산업	2025. 12. 31 기준 누계		2025. 01. 01 ~ 12. 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9,068	325,883.26	1,381	9,795.05	21,014.73
2	부동산 경영	1,318	79,586.74	107	3,676.95	7,112.3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5	42,647.27	9	746.71	1,084.28
4	호텔, 외식서비스	1,091	13,396.10	102	417.68	944.87
5	건설	9,304	12,750.98	1,412	471.90	3,017.50
6	도소매, 유지보수	1,883	10,738.51	57	220.52	432.09
7	물류 운수	1,320	7,368.11	142	265.46	373.77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166	6,485.95	464	402.47	1,974.29
9	정보통신	3,269	5,224.14	217	43.80	193.27
10	채광	108	4,970.74	1	15.00	101.65
11	교육, 양성	722	4,802.54	42	95.18	214.16
12	농,임,수산	538	3,868.71	6	41.12	60.31
13	예술 오락	88	3,717.48	6	1,075.04	1,257.72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4	3,170.05	4	0.91	9.32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849.23	3	12.65	175.01
16	행정, 지원 서비스	748	1,276.30	88	33.92	194.52
17	금융, 은행, 보험	166	939.58	8	4.16	37.10
18	기타 서비스	105	938.89	5	2.76	221.09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 계		45,416	529,625.24	4,054	17,321.28	38,418.0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2	2023	2024	2025.12
수출	3,713.00	3,546	4,055	4,750(+17.0)
수입	3,589.00	3,263	3,807	4,550(+19.4)
무역수지	124	280	247	2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56,709(+5.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107,748(+48.4)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59,046(+13.2)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39,641(+6.7)
신발류	23,895	20,237	22,871	24,203(+5.8)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17,204(+5.7)
철강제품	7,993	3,973	4,594	5,473(+19.2)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17,529(+15.0)
수산물	10,923	8,971	10,040	11,285(+12.4)
원사(Yarn)	4,713	4,355	4,407	4,314(-2.1)
기타	98,934	103,339	116,569	131,907
합계	371,304	354,671	405,531	475,0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12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150,696(+40.7)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61,026(+24.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11,258(+8.2)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15,198(+1.9)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12,531(+6.3)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11,212(-10.9)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11,373(+18.9)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9,781(+21.9)
화학제품	9,144	7,605	7,735	10,870(+22.8)
화학물질	8,747	7,726	8,286	8,113(+4.8)
기타	136,423	124,419	140,724	153,948
합계	358,901	326,373	380,763	455,00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2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53,178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70,453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28,943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26,766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17,557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13,478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9,533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10,351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8,796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8,392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127,612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475,0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2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86,034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60,544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33,026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24,677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19,287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13,281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7,189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11,004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11,519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6,112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82,333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455,00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2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62,767(+7.6)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31,772(+11.7)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30,995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2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24,656(+36.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10,324(-8.0)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2,134(-21.9)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2,253(-10.3)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2,174(-6.9)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814(+2.4)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1,081(+2.4)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1,127(+13.4)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675(+1.5)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623(+5.0)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15,906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62,767(+7.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2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4,909(+4.9)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3,325(-7.5)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2,988(+25.3)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5,080(+70.7)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2,029(+19.4)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1,161(-4.9)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579(-15.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683(+14.2)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763(+16.5)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406(-2.0)
기타	8,161	9,103	8,718	9,543	9,849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31,772(+11.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1	5.03	4.4	5.1	2.5	5.7	
	2025년 3Q	%	8.3	5.04	4.3	5.2	1.2	4.4	
	2025년 4Q	%	8.5	N/A	5.7	5.7	2.2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8.4	N/A	124.9	133.1	96.6	1.5
		2025년 10월	-	10.8	N/A	172.4	143.9	94.7	2.0
		2025년 11월	-	10.8	N/A	148.8	142.3	90.5	2.4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51.0	N/A	N/A	49.4	49.9	N/A
		2025년 10월	-	54.5	51.2	50.0	49.5	56.6	50.1
		2025년 11월	-	53.8	53.3	50.2	50.1	56.8	47.4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100.0	N/A	N/A	N/A
		2025년 10월	-	N/A	121.2	101.3	N/A	N/A	N/A
		2025년 11월	-	N/A	124.0	101.7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0	N/A	104.0	179.2	N/A	1.8
		2025년 10월	-	7.2	4.2	109.8	190.4	N/A	1.3
		2025년 11월	-	7.1	6.3	101.7	189.5	N/A	1.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N/A	3.2
		2025년 10월	%	3.25	2.9	1.2	1.3	N/A	1.7
		2025년 11월	%	3.58	2.7	1.2	1.4	N/A	1.7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3.0	4.61	N/A	3.1	N/A	N/A
		2025년 10월	%	15.6	N/A	N/A	N/A	N/A	N/A
		2025년 11월	%	7.4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0	3.2	1.0	3.8
		2025년 3Q	%	2.21	N/A	2.0	3.0	0.73	4.3
		2025년 4Q	%	2.22	N/A	N/A	N/A	N/A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5.7	5.5	△0.6
		2025년 10월	%	17.5	△2.3	25.2	15.7	5.7	20.3
		2025년 11월	%	15.1	△6.6	10.0	7.0	7.1	21.3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13.2	5.9	1.4
		2025년 10월	%	16.8	△1.2	21.0	11.2	16.3	△3.0
		2025년 11월	%	16.0	0.5	7.4	15.8	17.6	△2.0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베트남비즈니스센터 / 협업: 코트라하노이, 다낭, 호치민 무역관
Phone: +84-24-3946-0511 / Email: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 KOTRA>